

시 지정 문화재(유형민속)

1982년 3월 31일 지정

소유자:간교인

## 88 개소 후다쇼 오에마

시코쿠 88 개소 영지 순례는 무로마치 시대(1338-1573)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보대사 구카이가 시코쿠 지역 산과 들을 다니면서 수행했다는 전승에 따라 88 개소 영지를 순례한다. 소원 성취, 조상이나 부모 공양 등 순례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다.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순례 습속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에도 시대(1603-1868)에 이르러서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도 순례 풍습이 퍼져 크게 유행했다.

시코쿠 순례가 일반화되자 '신 시코쿠 88 개소'라 불리는 영지가 각지에 설정되었고, 가까이서 둘러볼 수 있는 영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모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순례를 하는 곳도 생겨났다. 지바현 북서부에만 10여 개의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내의 영지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후나바시 서부에서부터 이치카와·마쓰도에 걸친 가쓰시카 다이시이며, 또 하나는 후나바시·야치요·나라시노·가마가야·시로이에 걸친 요시하시구미 88 개소 영지이다. 요시하시구미 영지는 요시하시구미 다이시코가 운영했고, 봄과 가을 두 번 5일 동안 순례했다. 요시하시구미 다이시코의 후다쇼(참배 기념으로 패를 받는 영지) 배치와 순례 루트를 그린 현판 형식의 오에마(소원을 담아 글이나 그림을 그린 나무판)가 노만지 절과 다카네초 간교인 절에 각각 하나씩 봉납돼 보존되고 있다.

다카네초 간교인 절에 봉납돼 있는 액자는 세로 71cm, 가로 99.6cm 크기의 오에마로, 삼나무판 석 장을 모아 만든 나무판에 색을 칠해 그린 작품이다. 후다쇼 88 개소 중 86 개소에 대해 동그라미 안에 노만지 절과 마찬가지로 '15 번 다카네 간교인'과 같이 후다쇼의 순번, 지명, 절 이름을 적었다. 또한 고가네 시모노마키 방목마의 모습 외에 에비강과 그 지류를 비롯해 간노강과 하나미강까지도 묘사돼 있다. 다카네, 후나바시 다이진구 신사, 니노미야 신사 등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노만지 절의 오에마와는 다르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이곳은 소메이 다로베에가 다시 참배한

곳'과 '게이오 3년 초가을 길일'이라는 글이 보인다. 이 오에마가 게이오 3년(1867)에 봉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에마는 후나바시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신앙인 요시하시구미 다이시코의 영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2023년 3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